이 재앙, 귀차니즘의 저주

(출8:16~19)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 재앙, 귀차니즘의 저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 재앙, 귀차니즘의 저주'
첫 번째 피의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으로 '이'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권태기를 아시고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권태기라 하면 으레 부부간의 권태를 생각하고 연애하는 연인간의 권태기를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계에서 권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냉면 종류를 좋아해서 강릉으로 이사 온 후에 막국수를 지독하게도 많이 먹었는데, 한 2년 정도 되니 거의 손도 안 대게 되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애인인 것처럼 몰두해서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손도 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권태기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런 권태기의 바로 앞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바로 귀차니즘으로 귀찮아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 그렇게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권태기라고 말 할 수도 없는데 뭔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욕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고, 생일이면 이벤트를 하고 화이트데이 때에 사탕 사다주고 초콜릿 사다주는 열심이 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크게 말다툼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

데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넘어 가고, 문자가 오면 답을 주고, 두 번째 문자가 오면 답을 주고, 세 번째에 약간 마음이 짜증이 나면서 '이 밤에 웬 문자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요. 애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귀찮아지는데 왜 귀찮아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회사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랑이 버겁죠. 한창 뜨겁게 사랑할 때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애인을 만나면 위로가 되었는데,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일이 바쁘면 짜증이 납니다. 자꾸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쉬었으면 좋겠고, 놀러가자고 하는 것이 다 귀찮아지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귀찮은 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연애하고 싶거든 귀차니즘부터 청산하라"라고 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인데 머리해야 되고, 손톱 깎아야 하고 가꿀 것이 많으므로 귀차니즘을 청산하지 않고는 연애를 못 해요.
또 예를 들면 "귀차니즘이 피부를 망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날마다 피부를 손질해줘야만 하는데 이게 귀찮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 관리법, 탄력 있는 머리카락 유지하는 법, 목선에 주름 없애는 법, 날씬한 허리와 다리를 유지하는 법 등 말도 못하게 많은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걸 해야 사람 노릇도 하고 멋지게 살 수도 있는데 귀찮습니다.

'귀찮다'라는 뜻은,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거나 성가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귀찮음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귀찮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삶을 약속해주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가능성은, 아예 삶 속에 귀찮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시는데, 귀찮은 것을 이겨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귀찮은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재앙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가 내리고 그 저주에 의해서 재앙 가운데에 살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귀찮은 일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속하려면 귀찮음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만, 귀찮음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저주고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유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찮은 일이 존재하고, 귀찮은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저주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유전 죄가 생겼던 그 원인을

캐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귀차니즘이 극복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재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는 세 번째 재앙인 '이'에 대해 나옵니다.
'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과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모기의 일종인 각다귀를 말한다고 합니다.
각다귀는 모기의 종류로 다리가 길고 몸집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콧속에까지 들어가서 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곤충인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서 땅을 내려치니 땅의 티끌들이 다 각다귀가 되어서 생축과 사람들에게 떼로 달라붙었습니다. 그전의 각다귀들은 몇 마리 정도가 붙어서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땅에 있는 티끌이 다 각다귀로 변했으니 어마어마하고 더군다나 더운 지방이다 보니 노출도 많았을 것이고, 콧속으로까지 들어갔으니 말 다했습니다.
방금 전에 '귀찮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고 성가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성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셋째 재앙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애굽에 열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셉이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잘못된 우상숭배를 염두에 두며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땅의 신, 셉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어차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숭배하는 그 땅의 먼지들이 각다귀로 변해서 이게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도록 나타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기쁨을 얻고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에는 반드시 각다귀 재앙인 '이' 재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느냐?
바로 귀찮음으로 나타나는데 괴롭고 성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귀차니즘의 재앙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 껄끄럽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무의미해보이고 그 일을 위한 의욕과 힘이 주어지지 않고 마음이 천근만근인데도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밥 먹

고 나면 설거지가 귀찮고 겨울에 해가 쭉 들어오면 눈앞에 먼지가 잔뜩 보이는데도 귀찮으니 지그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 귀찮아요.
자식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귀찮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귀찮은 것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뭘 해달라고 하는데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에게 귀찮음이 없는 삶을 주시려고 했는데 본문에 단서가 나옵니다. 귀찮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힘과 의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고, 아예 귀찮음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오늘 재앙을 통해서 선민들에게 괴롭고 성가신 일이 전혀 없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러한 '이'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은 자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는다'
이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워져 있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끼고 있는 장갑이 되었을 때에, 장갑 자체가 귀찮음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찮다면 주인이 귀찮은 것이지 주인이 낀 장갑이 귀찮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직접 접촉하는 존재는 장갑입니다만 장갑은 귀찮은 줄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귀찮음이 없는 삶인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치라하면 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장갑으로 끼워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14: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갑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장갑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내 주인이 나를 끼고 내 속에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갑 된 자의 삶에는 귀찮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고 항상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갑이 힘을 쓰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귀찮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끼고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관리해야 한다면 내가 내 손을 움직여서 피부를 관리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내 몸을 움직여야 하고, 직장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내 몸을 움직여야 하고, 직장 장사가 커피를 타오라면 내 몸을 움직여서 커피를 타야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장갑처럼 끼고 살다보니 천근만근입니다.
연애의 초기처럼 들떠있고 달아올랐을 때에는 귀찮은 것을 모르지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가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루에 문자를 세 번 보내야 하고, 때 되면 뭘 챙겨서 사다줘야 하고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먼저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에서 여자나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귀찮음이 없고,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끼신 장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하고 허무한데 해야 하니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무의미한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그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귀찮다'라는 말이 '귀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귀하지 않다'가 '귀치 않다'가 되고 '귀찮다'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귀하게 느껴지면 귀찮음을 모르는데,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성가시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귀한 것을 마음에 들여오는 성향에서 귀찮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내게 존중할만한 것, 소중한 것을 귀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소중하다고 했습니까? 나입니다.
왜 나는 어떤 것은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뭐가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의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따라서 움직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고, 귀하지 않고, 좋고, 좋지 않고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귀찮다는 저주가 재앙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각다귀가 내 코에 들어와서 쏘고, 내 손과 발끝을 쏘면 얼마나 가렵고 신경질이 납니까?
이것이 다 귀한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귀찮음을 내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지런해서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연애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부부관계의 권태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귀찮아지고 애인관계가 귀찮아지면 극복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남자나 여자가 나와 맺어질 사람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고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배우자라면, 십자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와 남자를 만날 때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장갑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으로 끼신 채로 하게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찮음이라는 것은 없고, 귀찮음을 극복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부부관계의 완벽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부부와는 또 다른 우리 부부만의 완벽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내가 스스로 귀하고 귀하지 않고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귀찮다면 이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귀찮은 일을 피하다보면 내 인생이 이러다 망하겠다는 두려움과 후회와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려고 할 때에 힘이 들고 인생이 지칩니다.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극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기도를 하시면 각다귀 재앙인 '이' 재앙, 귀찮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면 세상에서 그렇게 귀찮게 여겨졌던 일들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좋던 일들인데도 하지 않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각다귀 재앙을 물리쳐내야 합니다.

귀찮은 일이 생긴다면 재앙 속에 살고 있고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을 것을 판단해서 귀한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만사에 귀찮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을 떠나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귀찮음이 느껴지는 일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죽습니다.
"하나님! 귀찮은 일이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고백과 함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거의 자동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는 몸의 감각으로 좋고 나쁘고를 느끼지만,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간 마음에서는 성령님이 감각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를 갖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땅의 신인 셉을 우상 숭배하는 마음 자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땅의 신 셉을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식으로 만족하려 하고, 직장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땅의 신인 셉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에 의해서 내 삶 전체가 귀찮음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귀찮다고 여기는 모든 일과 내가 귀하게 여겨서 마음으로 끌어들이거나 성취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땅 숭배를 중지해야 하고, 땅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근절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장갑으로 끼시고 하나님께서 별의 별 일을 다 하셔도 귀찮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저게 귀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매일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시려면 힘들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힘들지 않은 이유는 장갑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일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귀찮음의 재앙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장갑입니다. 이 일은 감사에 감사를 더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장갑 삼아 주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귀차니즘의 내용의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귀찮은 일에 둘러싸여 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귀찮음을 극복하는 삶이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음이라는 것은, 그 옛날 태초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저주 속의 재앙이므로 선악과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한 귀찮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찮음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귀찮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귀찮음이 아예 없는 귀찮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귀찮은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이 가볍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귀찮음은 인생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러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에서 땅 숭배가 죽음을 통하여 귀찮음이 아예 없는 삶,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사는 삶이 이

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